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26.(금) / (총 29매)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	과 장	박 혜 경	전 화	043-719-9370
	담 당 자	신 규 호		043-719-9374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과 장	한 준 욱	전 화	044-201-6805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	과 장	권 명 희		032-560-719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6월 26일 0시 현재, 지역사회에서 27명, 해외유입으로 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98명으로 총 11,172명(88.7%)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148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82명(치명률 2.24%)이다.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6.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6. 25.(목) 0시 기준	1,220,478	12,563	10,974	1,307	282	18,900	1,189,015
6. 26.(금) 0시 기준	1,232,315	12,602	11,172	1,148	282	18,828	1,200,885
변동	(+)11,837	(+)39	(+)198	(-)159	-	(-)72	(+)11,870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6.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1,148	417	7	19	104	1	57	5	2	313	9	2	18	5	2	6	8	3	170
격리해제	11,172	843	142	6,695	231	32	44	49	47	814	52	60	148	20	18	1,327	125	16	509
사망	282	7	3	189	1	0	1	1	0	23	3	0	0	0	0	54	0	0	0
합계	12,602	1,267	152	6,903	336	33	102	55	49	1,150	64	62	166	25	20	1,387	133	19	679
지역발생(잠정)	27	16	0	0	1	0	4	0	0	2	1	0	3	0	0	0	0	0	0
해외유입(잠정)	12	1	0	0	1	0	0	0	0	2	0	0	0	0	0	1	0	0	7
신규	39	17	0	0	2	0	4	0	0	4	1	0	3	0	0	1	0	0	7

* 6월 25일 0시부터 6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6월 26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서울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 연관성이 확인된
기확진자 2명이 추가되어 누적 확진자는 72명*이다.

* (구분) 양천구 탁구장 관련 41, 용인시 큰나무 교회 31

○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교인 1,715명)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12명*(지표환자 포함)이며,

* (구분) 서울 11명, 경기 1명

- 이중 교회 MT(6.19~6.20, 대부도, 20명)를 갔다 온 그룹에서 8명,
성가대원(20명) 중에서는 3명, 기타 교회 관련(6.21일, 4부 예배참석자)
1명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접촉자 분류 및
감염경로 조사 중이다.

* (지표환자 일정) 6.18(성가대 찬양연습), 6.19-20(교회MT), 6.21(예배),
6.22 (증상발생), 6.24(확진)

○ 경기 이천시 소재 구광 덕평물류센터 관련하여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어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 196명에 대한 검사 결과, 119명은 음성이었으며,
나머지 77명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중이다.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2명*이다.

* (구분) 방문자 35명, 접촉자 37명 (지역) 대전(52명), 충남(9명), 서울
(5명), 전북(2명), 세종(2명), 광주(1명), 경기(1명)

<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 추가 전파 현황 >

구분	확진자 수
힐링랜드 23	7명
자연건강힐링센터	4명
가거라 통증아	4명
홈닥터	22명(+1명)
가족 및 기타 직장	35명
누계	7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종교 소모임, 수련회 등 각종 종교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고 있어 주말을 맞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종교시설의 경우 밀집하여 대화나 찬송, 식사를 함께 하는 등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수련회, 소모임은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되도록 비대면으로 전환해주시기 바라며,

-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를 실시할 경우 참여자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참여자의 규모를 줄이고, 발열 및 의심증상확인, 손씻기,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며, 식사 제공 및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는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6월 26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 12명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중국 외 아시아 11명(카자흐스탄 7명, 방글라데시 1명, 아랍에미리트 1명, 파키스탄 1명, 필리핀 1명)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6.26 0시 기준) >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2	0	11	0	1	0	0	7	5	5	7
누계	1,508	19 (1.3%)	379 (25.1%)	506 (33.6%)	585 (38.8%)	18 (1.2%)	1 (0.1%)	679 (45.0%)	829 (55.0%)	1,203 (79.8%)	305 (20.2%)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환경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방법을 강조하였다.

○ 코로나19는 주로 호흡기 침방울(비말)을 통해 전파되지만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이 묻은 물체를 손으로 만진 후 본인의 눈·코·입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 침방울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물체의 표면에서 일정시간 생존* 가능하므로,

* 구리(최대 4시간), 골판지(최대 24시간), 천과 나무(1일), 유리(2일), 스테인리스 스틸과 플라스틱(4일)

- 침방울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를 차단하는 데 중요하다.

○ 코로나19 관련 올바른 소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독 전 준비

- (개인보호구) 소독하기 전 방수용 장갑(일회용 라텍스 장갑 또는 고무장갑)과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소독제 준비) 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신고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되,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할 수 있으며,

*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사용법) 물 1L(1,000cc)에 5%인 차아염소산나트륨 20mL(20cc)를 섞어 희석해서 사용

- (환기 및 청소) 소독 전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일상적인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소독 시행

- (표면 소독) 소독제를 적신 천(형걸, 종이타월 등)으로 손이 자주 닿는 표면(손잡이, 난간, 문고리, 식탁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다시 표면을 닦아야 한다.
- (화장실 소독) 화장실의 경우에도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을 닦아 주어야 한다.

※ 소독 부위 예시

- ①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②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③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환기) 소독한 장소는 반드시 환기시킨다.

3) 소독 후

-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탈의 후,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소독제를 분무하거나 분사한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표면이 충분히 소독제로 덮이지 않아서 소독 효과가 감소할 수 있고,
 -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 예상치 못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
- 도로나 길가 등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소독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건강 문제와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적 재확산 및 해외 유입 증가로 인해 소독 활동이 장기화되고 있어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소독제의 안전 사용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그간 지방자치단체 및 방역 관련 기관 등에 공문과 교육자료를 배포해 안전한 소독방법을 안내해 왔으며, 2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안전한 살균·소독 방법을 제시하며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살균·소독제는 세균,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성분, 즉 ‘살생물(殺生物)’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전한 살균·소독제(방역용, 자가소독용) 사용의 첫단계는 환경부의 승인·신고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필요한 곳에만 필요한 만큼 사용방법·주의사항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다.
 - *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자가소독용 살균제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 (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살균·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인체에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노약자는 유해물질에 취약하므로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의 장소에서는 소독제 성분을 흡입하거나 만지지 않도록 공간 소독보다는 손이 닿는 물체표면과 바닥을 닦아 소독하고, 소독 후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한다.

□ 환경부는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음을 강조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 안전하게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지자체, 방역업체 등이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주의사항 카드뉴스(환경부)

5. 코로나19 안전한 소독방법 카드뉴스(환경부))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자료> 1. 「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2.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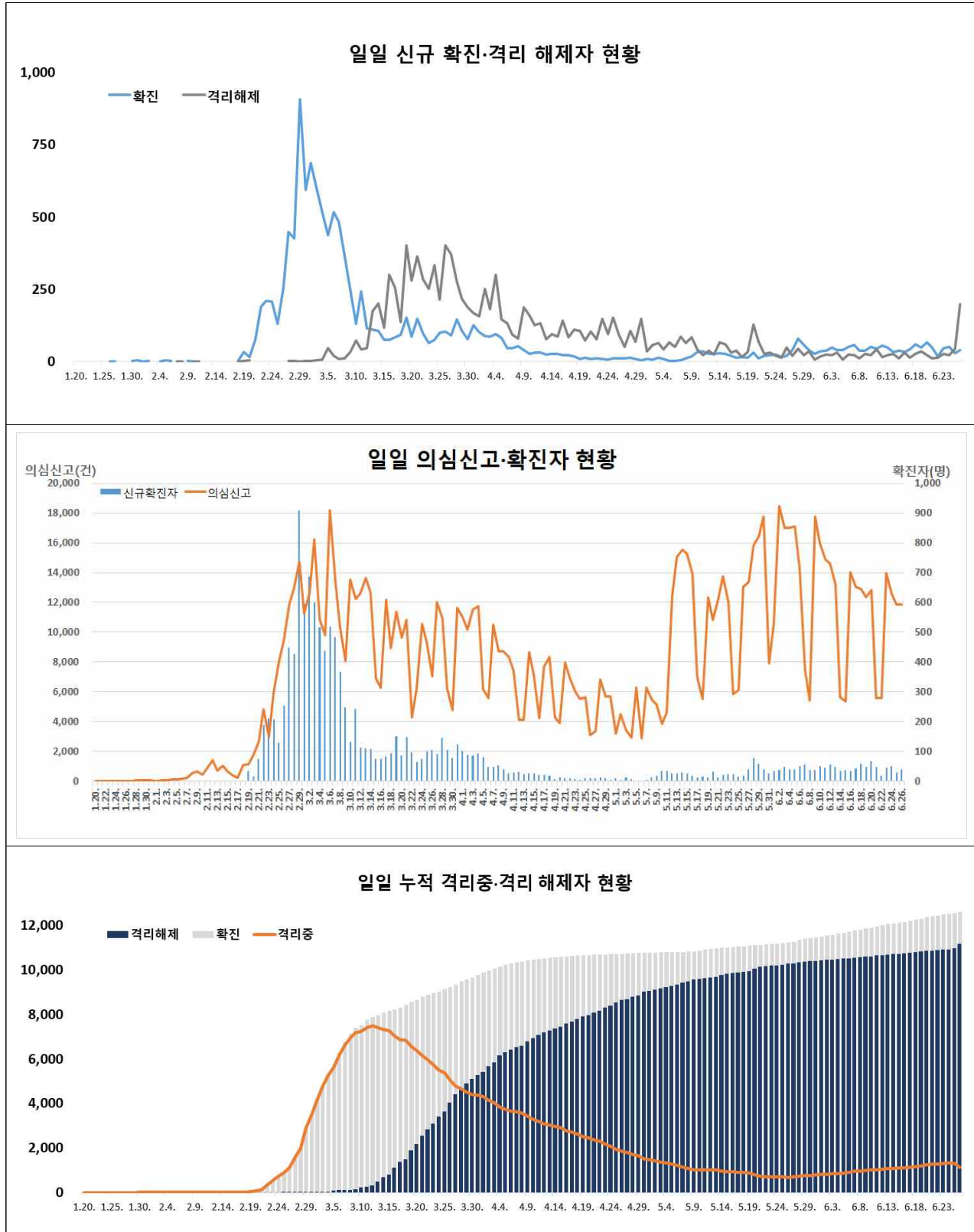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8.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9.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내국인용]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1 확진자 일별 추세 (6.26. 0시 기준, 12,602명)



2 확진자 지역별 발생현황 (6.26. 0시 기준, 12,60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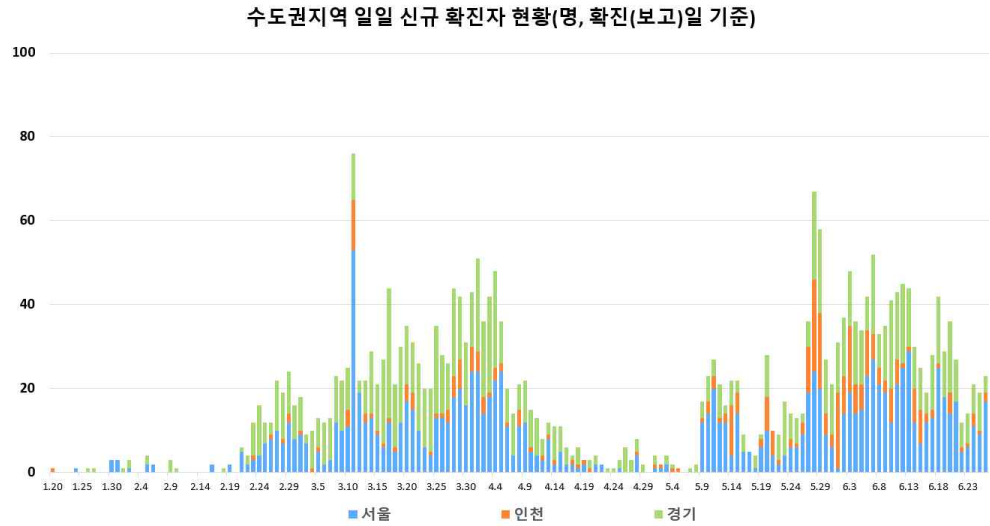
지역	확진환자수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서울	1,267 (10.05)	13.02
부산	152 (1.21)	4.46
대구	6,903 (54.78)	283.32
인천	336 (2.67)	11.37
광주	33 (0.26)	2.27
대전	102 (0.81)	6.92
울산	55 (0.44)	4.79
세종	49 (0.39)	14.31
경기	1,150 (9.13)	8.68
강원	64 (0.51)	4.15
충북	62 (0.49)	3.88
충남	166 (1.32)	7.82
전북	25 (0.20)	1.38
전남	20 (0.16)	1.07
경북	1,387 (11.01)	52.09
경남	133 (1.06)	3.96
제주	19 (0.15)	2.83
검역	679 (5.39)	-
총합계	12,602 (100)	24.31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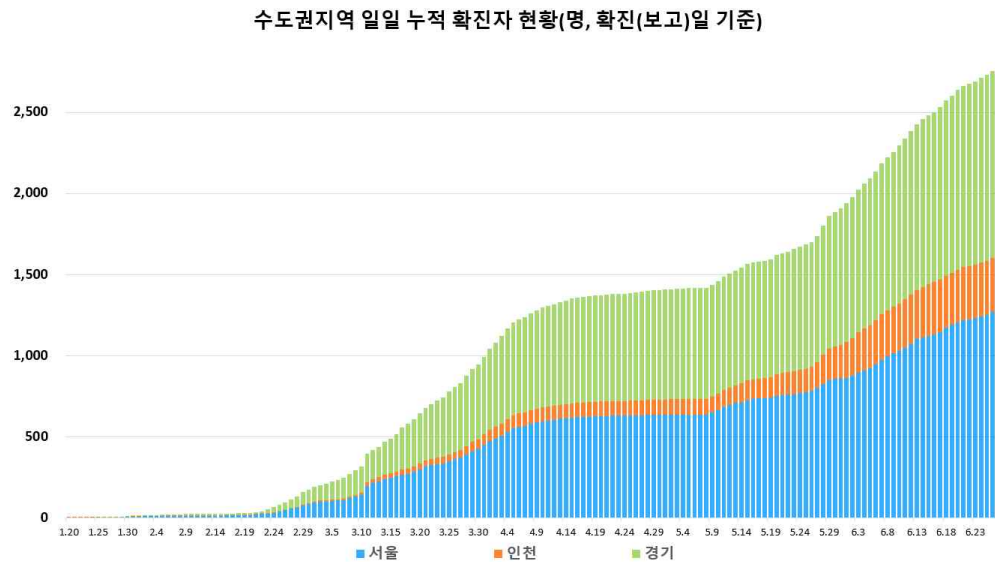
*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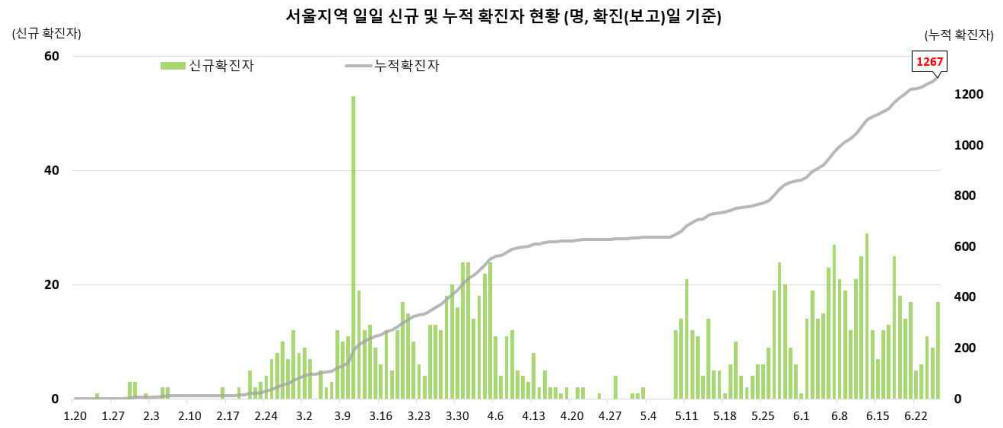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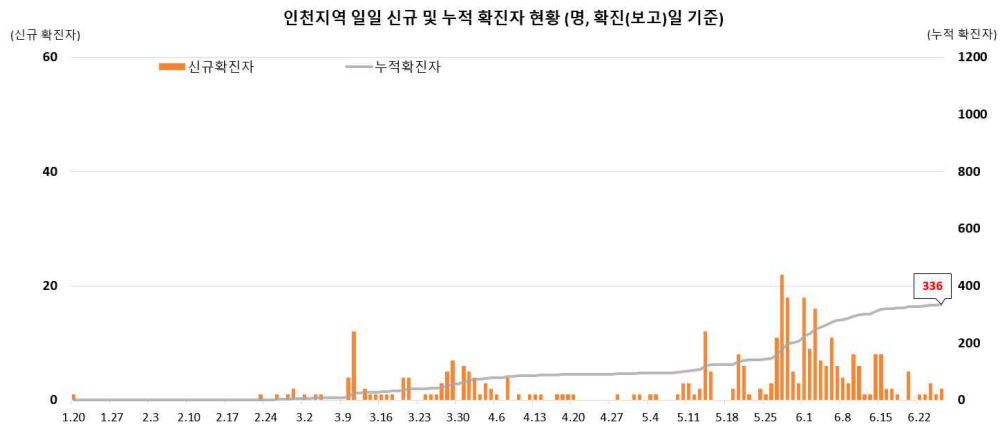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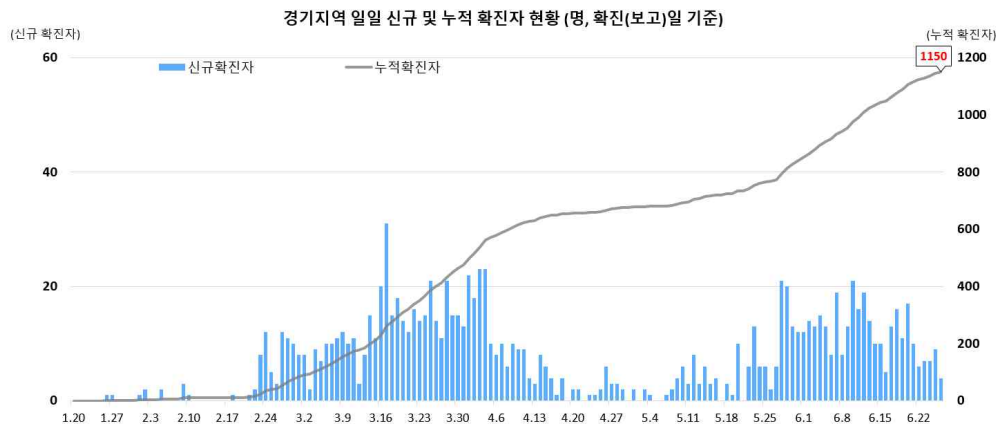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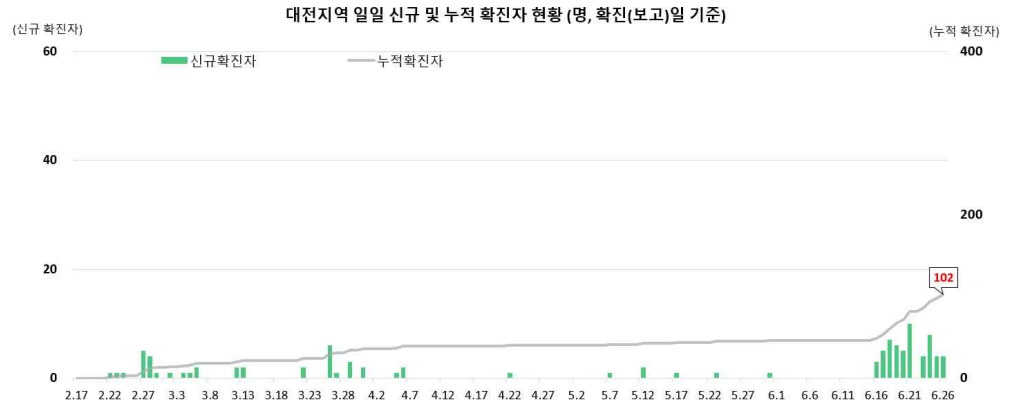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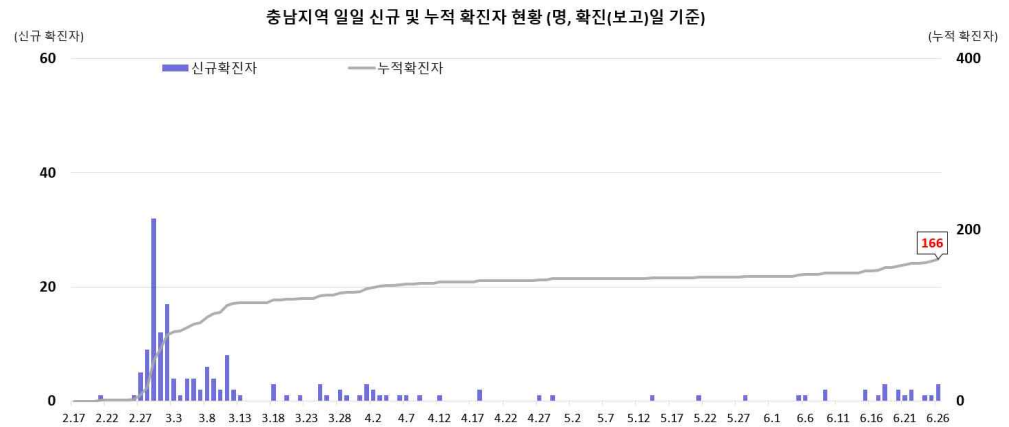


< 대전/충남/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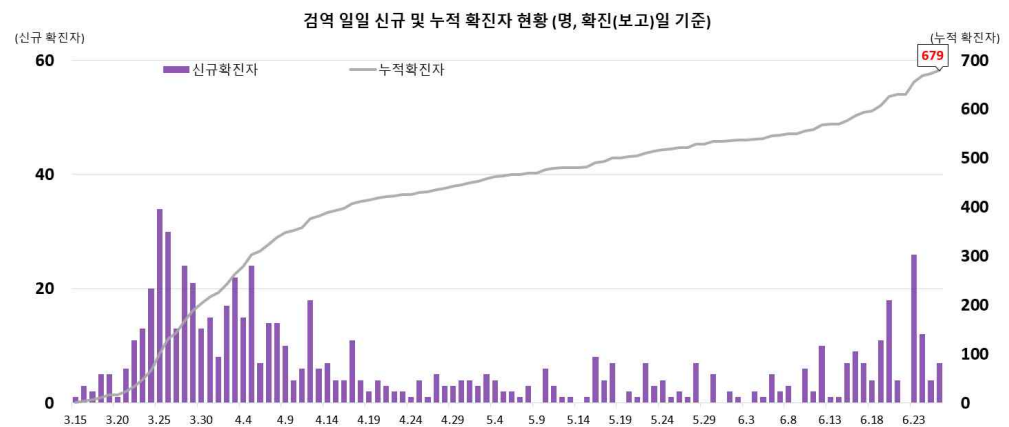
대전지역
확진자 현황



충남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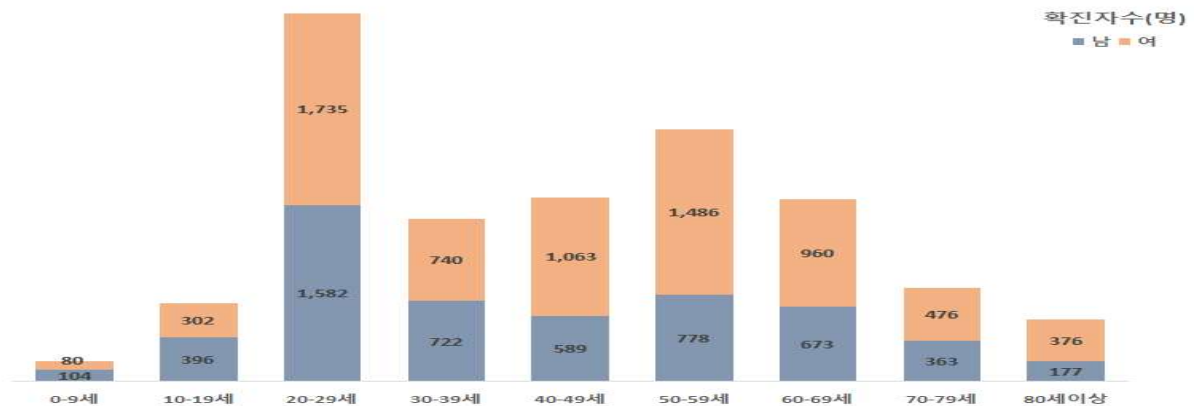
3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6.26. 0시 기준, 12,602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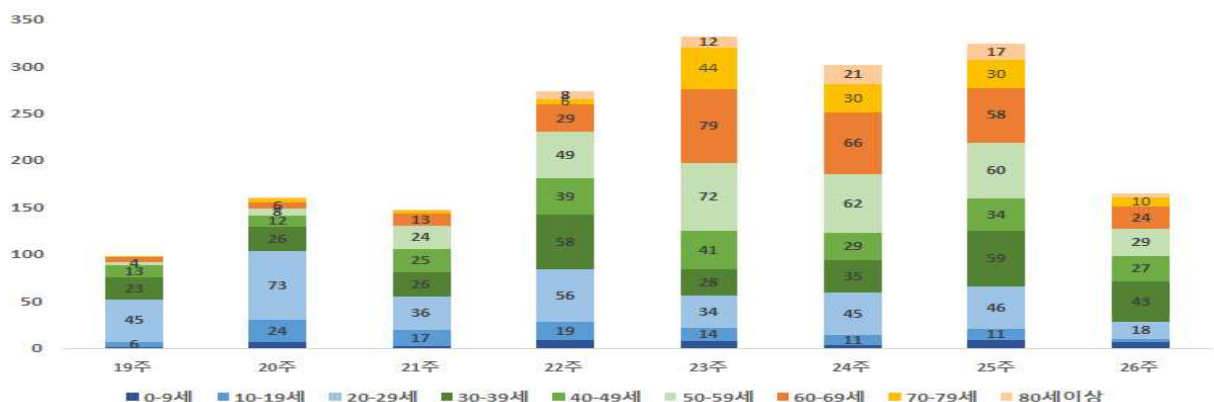
구 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12,602 (100)	282 (100)	2.24
성별	남성	5,384 (42.72)	151 (53.55)	2.80
	여성	7,218 (57.28)	131 (46.45)	1.81
연령	80세 이상	553 (4.39)	139 (49.29)	25.14
	70-79	839 (6.66)	82 (29.08)	9.77
	60-69	1,633 (12.96)	41 (14.54)	2.51
	50-59	2,264 (17.97)	15 (5.32)	0.66
	40-49	1,651 (13.10)	3 (1.06)	0.18
	30-39	1,463 (11.61)	2 (0.71)	0.14
	20-29	3,317 (26.32)	0 (0.00)	-
	10-19	698 (5.54)	0 (0.00)	-
	0-9	184 (1.46)	0 (0.00)	-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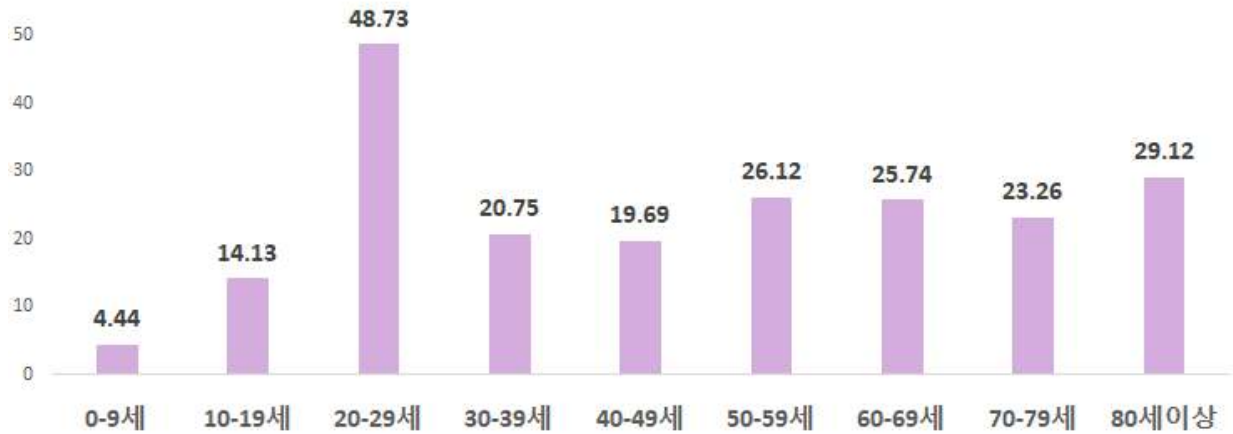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확진자수 >



< 연령별·주별 확진자 현황 >



< 연령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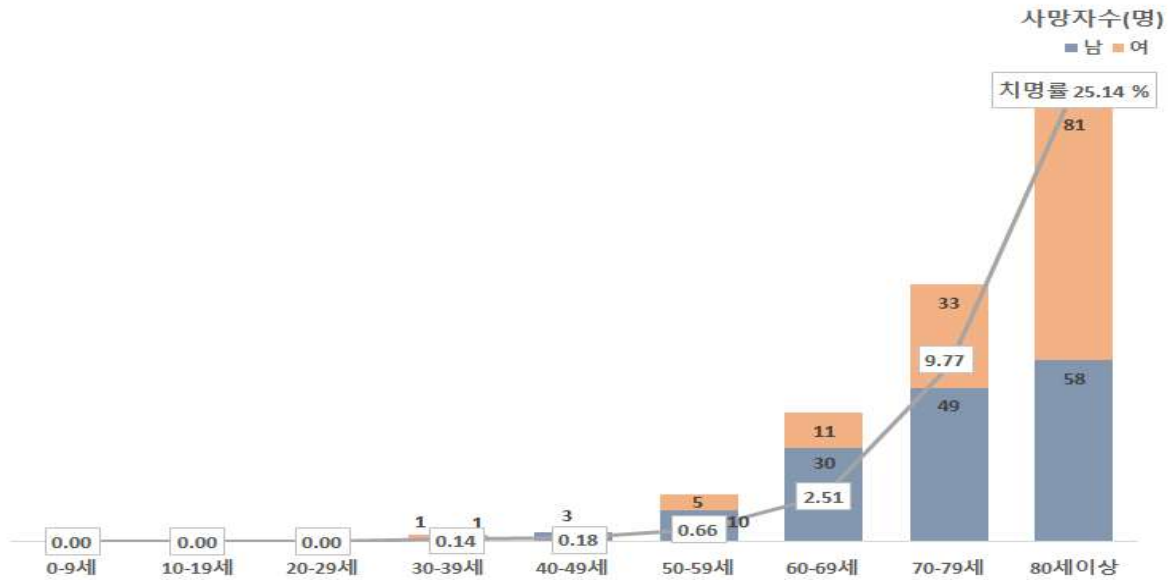


< 위증·중증환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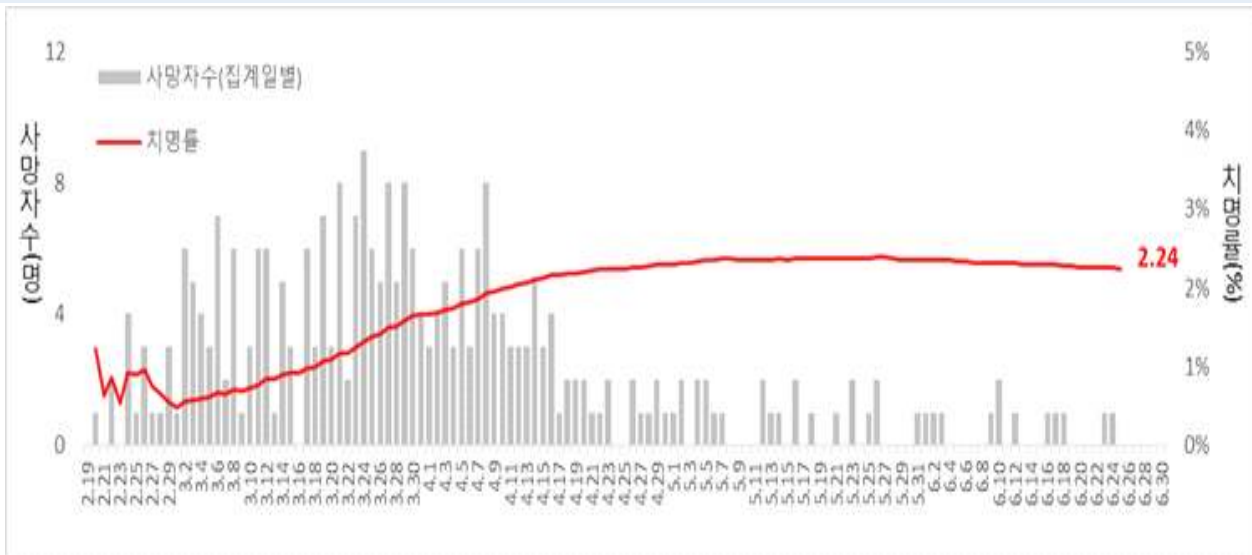
구분	6.13일	6.14일	6.15일	6.16일	6.17일	6.18일	6.19일	6.20일	6.21일	6.22일	6.23일	6.24일	6.25일	6.26일
계	22	22	20	24	25	27	33	33	34	34	37	38	37	35
중증	11	10	10	15	15	16	21	17	17	17	18	17	19	15
위증	11	12	10	9	10	11	12	16	17	17	19	21	18	20

구분	계	중증 (%)	위증 (%)
계	35	15 (100.0)	20 (100.0)
80세 이상	8	2 (13.3)	6 (30.0)
70-79세	12	6 (40.0)	6 (30.0)
60-69세	8	4 (26.7)	4 (20.0)
50-59세	5	1 (6.7)	4 (20.0)
40-49세	1	1 (6.7)	0 (0.0)
30-39세	1	1 (6.7)	0 (0.0)
20-29세	0	0 (0.0)	0 (0.0)
10-19세	0	0 (0.0)	0 (0.0)
0-9세	0	0 (0.0)	0 (0.0)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 일별 사망자 현황 >



4 감염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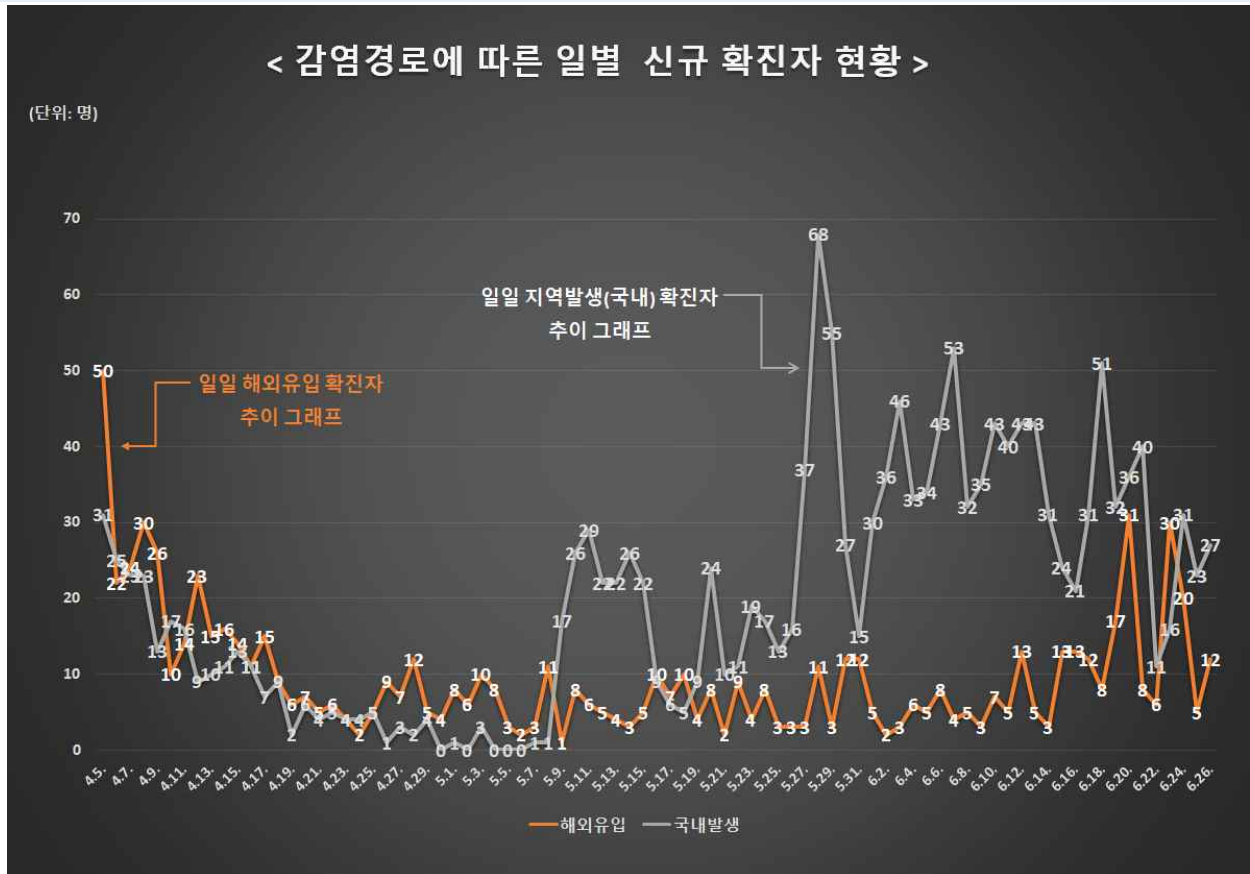
<단위: 명, %>

지역	확진환자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 발생 관련					기타*	신규	
			소계	신천지 관 련	집단 발병	확진자 접촉자	해외유입 관 련			
서울	1,267	295	872	8	764	31	69	100	17	클럽 관련(139), 리치웨이 관련(117), 구로구 콜센터 관련(99), 양천구운동시설 관련(44), 성심데이케어센터 관련(43), 만민중앙교회 관련(4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37), 동대문구 동안교회-PC방 관련(28), 쿠팡 관련(24), 왕성교회 관련(7) , 대전 방문판매 관련(5),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4), 강남구 모임 관련(4) 등
부산	152	34	88	12	57	18	1	30	0	온천교회 관련(39), 수영초 관련(5), 클럽 관련(4) 등
대구	6,903	37	6,121	4,511	689	917	4	745	0	제이미주병원 관련(196), 한사랑요양병원 관련(124), 대실요양병원 관련(101), 파티마병원 관련(39), 클럽 관련(2) 등
인천	336	55	269	2	253	6	8	12	2	쿠팡 관련(61),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57), 클럽 관련(54), 리치웨이 관련(24), 구로구 콜센터 관련(19), 계양구 일가족 관련(12), 예수말씀 실천교회 관련(5), 자동차동호인모임 관련(3) 등
광주	33	16	17	9	1	1	6	0	0	
대전	102	15	75	2	65	8	0	12	4	대전방문판매 관련(51) , 꿈꾸는교회 관련(4) 등
울산	55	22	26	16	4	3	3	7	0	
세종	49	4	44	1	40	3	0	1	0	해양수산부 관련(31), 운동시설 관련(8)
경기	1,150	231	842	29	689	61	63	77	4	성남 은혜의강 교회 관련(67), 쿠팡 관련(67), 클럽 관련(59), 리치웨이 관련(57), 의정부성모병원 관련(50), 구로구 콜센터 -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50), 양천구운동시설 관련(27),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25), 군포안양목회자모임 관련(22), 의왕 롯데제과 물류센터 관련(15), 행복한요양원 관련(10), 한국대학생선교회 관련(7),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6)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관련(6), 서울시청역 안전요원(5), 강남 다단계유니온 관련(3) 등
강원	64	16	41	17	24	0	0	7	1	의정부성모병원 관련(10), 원주시 아파트 관련(4), 리치웨이 관련(4), 금천구 도정기회사 관련(3) 등
충북	62	10	42	6	27	7	2	10	0	괴산군 장연면 관련(11), 클럽 관련(9), 구로구 콜센터 관련(2) 등
충남	166	14	140	0	137	2	1	12	3	천안시 등 운동시설 관련(103), 대전방문판매 관련(10) , 리치웨이 관련(3), 은평 복스골문화센터 관련(3) 등
전북	25	12	8	1	7	0	0	5	0	클럽 관련(2), 대전방문판매 관련(2)
전남	20	12	5	1	1	2	1	3	0	
경북	1,387	20	1,234	566	478	190	0	133	1	청도 대남병원 관련(119), 봉화 푸른요양원(68), 경산 서요양병원 관련(66), 성지순례 관련(41), 예천군 관련(40), 구미엘림교회 관련(10) 등
경남	133	23	90	32	50	6	2	20	0	거창교회 관련(10), 윈스타워 관련(9), 거창군 웅양면 관련(8), 소소서원 관련(3), 클럽 관련(2) 등
제주	19	13	2	0	1	0	1	4	0	
검역	679	679	0	0	0	0	0	0	7	
합계	12,602 (%)	1,508 (12.0)	9,916 (78.7)	5,213 (41.4)	3,287 (26.1)	1,255 (10.0)	161 (1.3)	1,178 (9.3)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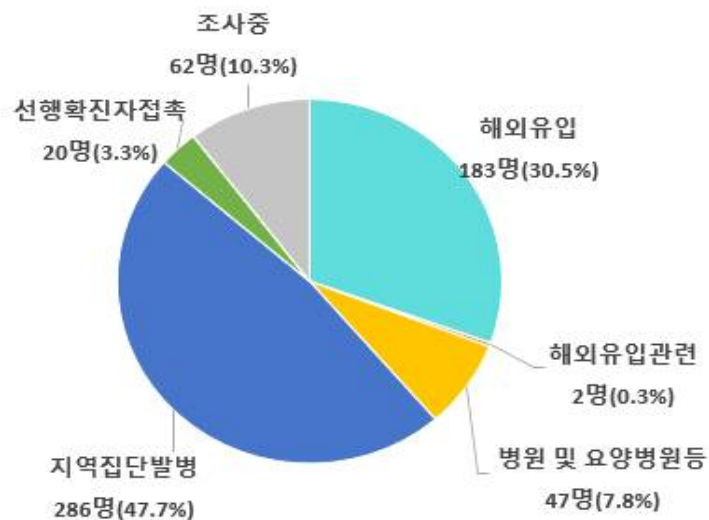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기타는 개별사례, 조사 후 연관성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 조사 중인 사례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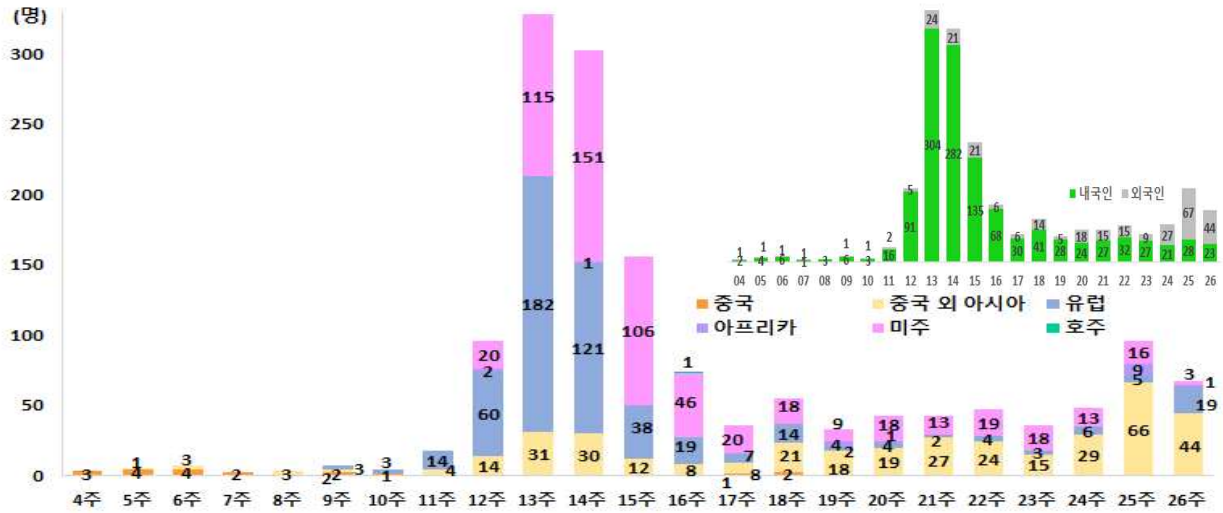
< 감염경로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6.12일 0시~6.26일 0시까지 신고 된 600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확진자수(명)		여행국
중국	19	-
중국외아시아	379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이라크,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유럽	506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벨라루스 등
아프리카	18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지부티, 세네갈, 나이지리아 등
미주	585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에콰도르, 바베이도스 등
호주	1	호주

*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 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 (4.1일 이후) >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180,000명 이상 국가 및 아시아 주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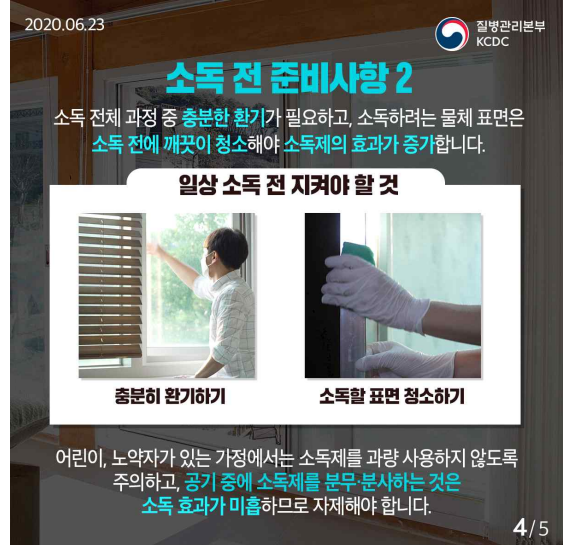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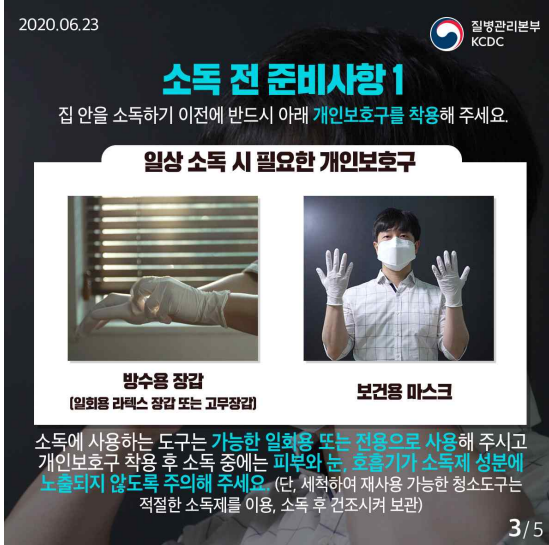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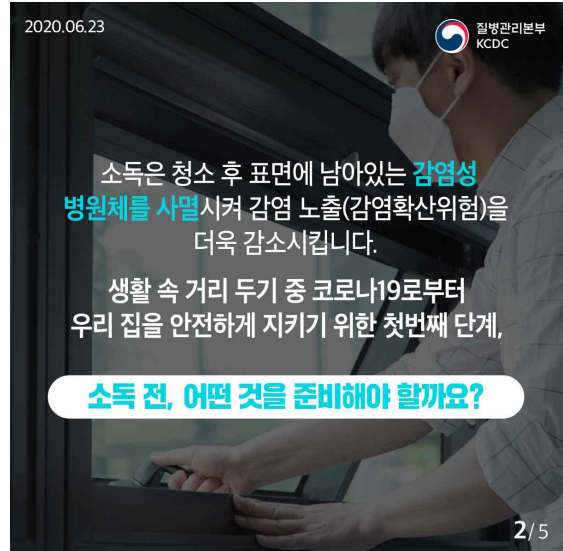
<단위: 명>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미국	2,416,727	40,464	122,550	648	5.1	734.3
브라질	1,228,114	39,483	54,971	1,141	4.5	578.2
러시아	613,994	7,113	8,605	92	1.4	426.7
인도	473,105	16,922	14,894	418	3.1	34.6
영국	307,980	1,118	43,230	149	14.0	459.7
페루	268,602	3,913	8,761	175	3.3	816.4
칠레	259,064	4,648	4,903	172	1.9	1383.2
스페인	247,486	400	28,330	3	11.4	533.4
이탈리아	239,706	296	34,678	34	14.5	404.9
이란	215,096	2,595	10,130	134	4.7	259.8
멕시코	202,951	6,104	25,060	736	12.3	153.4
독일	193,371	500	8,940	12	4.6	234.7
터키	193,115	1,458	5,046	21	2.6	232.7
파키스탄	192,970	4,044	3,903	148	2.0	94.3
방글라데시	122,660	3,462	1,582	37	1.3	76.0
중국	83,462	13	4,634	0	5.6	5.9
인도네시아	49,009	1,113	2,573	38	5.3	18.2
싱가포르	42,736	113	26	0	0.1	724.3
필리핀	32,295	470	1,204	18	3.7	29.9
일본	18,197	87	969	1	5.3	14.3
말레이시아	8,596	6	121	0	1.4	26.4
태국	3,158	1	58	0	1.8	4.6
베트남	352	3	0	0	0.0	0.4
대한민국	12,602	39	282	0	2.2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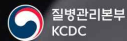
*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붙임 3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2020.06.24



코로나19로부터 우리집을 깨끗하게 우리집 방역하기, 집방!

2편 올바른 소독제 준비하기

1/5

2020.06.24



올바른 소독제를 선택하였다면,
안전하게 소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중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두번째 단계,

올바른 소독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5

2020.06.24



올바른 소독제 선택하기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소독제 목록 및 정보제공) 환경부 초록누리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 농도	비고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	0.05~0.5%	금속표면 손상에 주의 흡입에 의한 독성 가능
알코올	에탄올(에틸알코올) 이소프로판올	70~90%(알코올) 50%(이소프로판올)	피부자극 및 심각한 눈 자극 유발 가능
4급 염모늄화합물계	벤질코늄염화물	0.05% 이상 함유	피부자극 및 심각한 눈 자극 유발 가능, 흡입에 의한 독성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	피부자극 및 심각한 눈 자극 유발 가능, 장구 및 흡입에 의한 급성 독성 가능
페놀화합물	크로록실레놀	0.12%	피부, 눈 자극 유발 가능

3/5

2020.06.24



올바른 소독제 만들기

올바른 소독제를 선택했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 직전에 희석**해야 합니다.

0.1% 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 만들기



- 준비물**
- 20mL 차아염소산나트륨 (1,000ppm)
- 1,000mL 페트병

- 작업 전 개인보호구 착용**
- 방수용 장갑(일회용 라텍스 장갑 또는 고무장갑)
- 마스크 및 방수성 앞치마 등

· 만드는 방법



5% 원액 20mL를
페트병에 붓는다.



천을 더하기



1,000mL로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섞는다.

4/5

2020.06.24



소독 전 준비사항을 완료하고 올바른 소독제까지 만들었다면 올바른 소독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르게 우리집 방역하기,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5/5

2020.06.25



코로나19로부터 우리집을 깨끗하게 우리집 방역하기, 집방!

3편 올바른 소독법

1/5

2020.06.25



올바른 소독 전 준비사항과 소독제 선택을
모두 완료했다면 **집 안을 소독할 차례!**

생활 속 거리 두기 중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

집 안 소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

2020.06.25



집 안 소독 시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소독해야 하며
일회용 천에 소독제를 적신 후 표면을 닦아야 합니다.
(단, 금속, 전자기기같이 부식·파손 위험이 있는 물건은 70% 알코올을 묻혀 닦아주세요.)

올바른 소독 방법



①
일회용 천*에
소독제 적시기

*타세균, 주방용 일회용 휴지,
일회용 부직포, 일회용 방수 등



②
손이 자주 닿는 물품*,
벽면 닦은 후 일정 시간 유지

*수도꼭지, 전화기, 문고리, 컴퓨터 등



③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표면 닦기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의 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3/5

2020.06.25



집 안 소독 전후에는 충분히 환기하여야 합니다.

일상 소독 후 지켜야 할 것



①
사용한 장갑과 천은
종량제봉투에 밀봉하여 버리기



②
소독 후 물과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4/5

2020.06.25



올바른 소독제와 소독법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집

소독과 함께 만드는 변화로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더욱 가까이 해요!

5/5

붙임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주의사항 카드뉴스환경부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주의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지 알려드려요.

제품명	손소독제
알람	500ml
한눈에	살균소독
신고·승인번호	1234567
유효농도	에탄올 72%
사용기한	2021.04

- 살균·소독제 제품 뒷면 표기사항에 신고·승인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코로나19 살균·소독을 위해서는 환경부에 신고·승인된 제품 중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검색창에 신고·승인제품확인 가능

환경부

코로나19 소독용 제품에는 가정용, 방역용 등 여러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신고·승인제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코로나19 살균·소독제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WHO, 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를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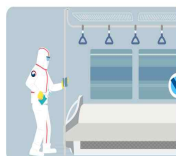


유효성분을 유효농도로 함유한
신고제품(락스 등)과 감염병예방 및
방역용으로 승인된 제품 모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신고·승인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목록을 참고하세요.



가정, 사무실 등에서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락스, 에탄올 70%제품 등)
제품 권장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방역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농도
염소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0.05 ~ 1.0% (유효염소량 500 ~ 10,000ppm)
	아염소산나트륨	0.23%
알코올	에탄올	70% ~ 90%
	이소프로판올	50%
4급암모늄 화합물	벤질코늄염화물	0.05% ~ 0.5%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0.5%
	과아세트산	0.26%
페놀 화합물	클로록실레놀	0.12%

대표 유효성분 주의사항

분류	대표 유효성분	주의사항 (살균·소독 후 충분히 환기할 것)
염소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 피부 및 눈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으므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소독해 주세요.
	아염소산나트륨	▶ 섬유변색 및 금속 표면 손상 조심! ▶ 소독 후 10분간 건조, 10분 후 깨끗한 수건으로 다시 닦아주세요.
알코올	에탄올	▶ 피부 및 눈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소프로판올	▶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질 손상 조심! ▶ 1분 이내 소독(휘발성, 인화성 제품)
4급암모늄 화합물	벤질코늄염화물	▶ 피부 및 눈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으므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소독해 주세요.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 소독제를 10분 이상 접촉할 것
	과아세트산	▶ 피부 및 눈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경구 및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으므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소독해 주세요.
	과아세트산	▶ 금속 표면 손상 주의! ▶ 소독제를 5분 이상 접촉할 것
페놀 화합물	클로록실레놀	▶ 피부 및 눈 자극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으므로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소독해 주세요.
	클로록실레놀	▶ 소독제를 30초 이상 접촉할 것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제품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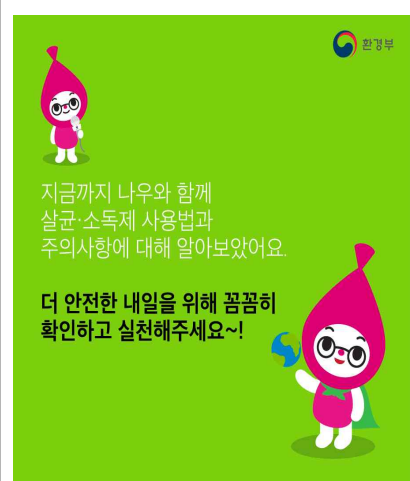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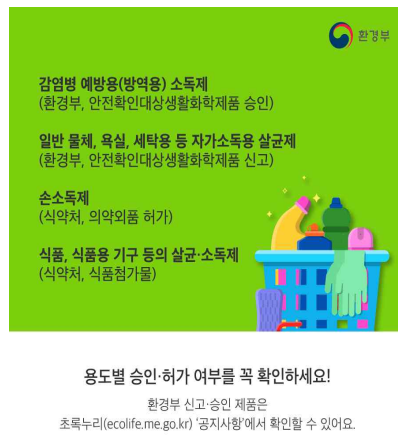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반드시 용법, 용량 및 주의사항을
지켜주세요!!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살균·소독제 제품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붙임 5

코로나19 안전한 소독방법 카드뉴스환경부



붙임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적 재확산 및 해외유입 증가로 인해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 ◆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1 (인체에 무해한 성분?)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 해당 용도로 소관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물체용 살균제를 몸에 직접 바르거나 식기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 유효성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욕실,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붙임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3 (공기를 소독한다?)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 '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 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 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④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 **(소독시 보호장비)** 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소독 후 조치)**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 **(영유아 등 노약자)**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 ② 공간 소독은 자제하며,
 -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위주로 소독제를 헝겊에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붙임 7

「감염병 보도준칙」 (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